

2022년 8월 21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세상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흥케
하옵소서. 모든 선교지에 나간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시대 The Judges
사도행전 Acts 13:19-20

19.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사백오십 년간이라.
And after destroying seven nations in the land of Canaan, he gave them their land
as an inheritance.

2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All this took about 450 years. And after that he gave them judges until Samuel the
prophet.

오늘 본문은 바울이 소아시아의 한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in Pisidia)의 회당에
들어가서 실시한 설교 중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7장까지”를 압축한 내용입니다.

19.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사백오십 년간이라.
And after destroying seven nations in the land of Canaan, he gave them their land
as an inheritance.

여호수아서(Book of Joshua)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전쟁을 실시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열 두 지파가 각각 가나안 땅의 특정 지역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로 읽고 그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입니다. 그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십자가의 빛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삭-야곱 때 주신 약속을 타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0년 광야 행진을 거쳐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 가나안 땅은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mission)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정복해야 할 그 첫째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복전쟁 “주제”는 “헤렘”입니다. “헤렘”은 “전멸”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온전한 헌신”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 땅을 소유하는 방법은 “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inheritance of God)입니다.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영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헤렘”은 출발부터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정복전쟁이었던 여리고(Jericho)성 정복 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인 아이(Ai)성 전투에서 참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대표로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온전한 헌신을 저버린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아간(Achan)의 죄악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늘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But He answere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마태복음 Matthew 4:4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The flesh is no help at all.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요한복음 John 6:63

그러므로 정복전쟁 시대의 모든 혼란은 오늘도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어떤 방심도 금물입니다.

2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All this took about 450 years. And after that he gave them judges until Samuel the prophet.

그리고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처음 사사는 옷니엘(Othniel)이었습니다. 그는 갈렙(Caleb)의 아우 그나스(Kenaz)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Samuel)이었습니다. 그는 사사이면서 선지자 역할도 맡았습니다. 물론 “제사장”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실시되었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정통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통치하였지만, “혼란”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면모를 보면 여러 가지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Gideon)은 겁쟁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겨우 300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미디안 대군을 쳤습니다.

삼손(Samson)은 유혹에 약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드보라(Deborah)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어떤 남자 사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사시대가 구원역사에서 의미 있는 것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 전체를 흐르는 물줄기는 “기다림”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참된 목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얻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사사기 Judges 21:25

이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시대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나로 매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제2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수아-갈렙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통하여 이들은 오히려 그들 중에 남아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들과 세상 여러 나라를 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제도”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라운데, 인간의 죄악은 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Samuel)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였습니다. 불임으로 고통하던 여인 한나(Hannah)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은 영적으로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도 희미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무엘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백성들에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세로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in Pisidia)에서 행한 설교의 한 토막을 목상합니다. 여호수아-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이르는 그 길고 오랜 세월을 간단한 문장 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삶은 이처럼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성도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Therefore, holy brothers, you who share in a heavenly call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히브리서 Hebrews 3:1

갈라디아(Galatia)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나타난 바울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But far be it from me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갈라디아서 Galatians 6:14

정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 아래 정복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Herem)을 명령하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가나안 땅을 열 두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삭-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자손이 사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And they will come back here in the fourth generation.
창세기 Genesis 15:16a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에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기간에 주신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사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와 놀라운 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대혼란은 아름답고 거룩한 모든 은혜를 저버리는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씻을 수 없는 죄악 중에 죄를 더 하여, 그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즐거이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입니다. 이미 작전에서 승리를 확보해 둡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손자병법에도 “이미 충분히 수를 계산하여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칩니다.

기생 라합(Rahab)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 보아스와 며느리 룻을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브온”(Gibeonite) 주민들이 왔습니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승리하여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악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본 것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전투는 “도박”이 아닙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면 나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하든지 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확보한 승리”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극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지말에,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온전히 천국에 이르는 소망뿐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실시한 설교에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7장까지 내용을 두 줄로 요약했습니다. 이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구원사”의 빛에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이 보이는 기간 동안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 절망은 오히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력한 소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해당 시기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영적 승리는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정복과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과 혼돈을 보옵소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견게 하옵소서. 이 발걸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길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